



동네책방 숨(광산구 수완동)



라이트 라이프(남구 양림동)



검은책방 흰책방(동구 서석동)



타인의 책 지음책방(동구 동명동)



싸목싸목 책방마실 떠나볼까



파종모종(북구 중흥동)

광주시, 12곳 소개 무료 리플릿 발간 책방지기 추천 카페·공방 등도 눈길

광주의 작은 서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동네 책방 길라잡이 ‘싸목싸목 책방 마실’이 나왔다. 광주시가 펴낸 리플렛에는 동네 책방 12곳이 소개돼 있다. 작은 공간들이지만 모두 제각각 개성을 갖춘 곳으로 취향에 맞는 책방 한 두개쯤 단골로 두어도 좋을 듯하다. 작은 서점은 단순히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독서 모임, 강연 등 다양한 소모임들이 열리는 문화 공간이기도 하다.

광산구 수완로 ‘동네책방 숨’(062-954-9420)은 책방, 카페, 다식의 서점(마음도서관) 등이 어우러진 곳으로 다락방에서 머물며 밤새 책을 볼 수 있는 북스테이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양림동커뮤니티 센터 바로 앞에 자리한 ‘메이드인 아날로그’(062-400-0012)는 서점과 디자인숍, 주얼리 가게를 아우르는 공간이며 전남대 병원 일

방로에 자리한 ‘검은책방 흰 책방’(010-7608-9896)은 문학 전문 서점이다.

맥주 한잔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점들도 있다.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문을 연 ‘타인의 책 지음책방’(062-457-1208)은 부부가 모은 6000여권의 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으며 맥주, 생소, 커피, 맥주, 빵 등 다양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

1913 송정역 시장에 문을 연 ‘인생가게’(1588-9426)는 노란색 외관이 인상적이다. 맥주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고 서점에 비치된 원고지에 좋아하는 책 한 구절씩 쓰는 즐거움도 있다.

인문학자 심옥숙·박해용 부부가 운영하는 ‘심가네 박씨’(062-229-0687)는 인문학 강좌인 ‘인문지행’ 강의를 비롯해 다양한 강의가 열리고 있으며 처음 동명동 쪽에 문을 열었던 독립출판물 전문 서점 ‘파종 모종’(010-9452-1606)은 북구 효동초등학교 인근으로 옮겨 운영중이다.

그밖에 충장로 4가 ‘소녀의 서’(010-3256-2625), 봉선동의 ‘공백’, 전남대 인근 ‘연지책방’(070-

7760-7982), 양림동 ‘라이트 라이프’(010-9578-08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책과 생활’(070-8639-9231) 등도 소개돼 있다.

‘책방지기 추천 장소’도 눈여겨 볼만하다. 단청 공예 공방 ‘단청, 그 또 다른 시간’, 푸른길 공원, 무등산 커피, 율곡대 문화관, 시민자유 대학 등 주인장들이 방문객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장소들이다.

지역에도 책방이 여러곳 생겼다 보니 책방들이 함께 모여 작은 행사를 열기도 한다. ‘파종모종’이 주도해 진행하는 북페스티벌 ‘오늘 산책’은 광주·전남·전북 책방과 제작자, 작가 방문객이 만나는 축제의 장이다. 북마켓, 공연, 전시들과 함께 독립출판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듣기도 하고 팝업북을 직접 만들기도 한다. 자세한 일정은 인스타그램(instagram.com/today.buy.bo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방 마실’은 동네 서점을 비롯해 지역 문화공간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음식장인에 전수받는 비법

광주문화재단 2월2일까지 모집

남도전통음식을 배우는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하 전통문화관)은 일반시민,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2018 전통문화예술강좌 특별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전통음식강좌는 이애선 음식장인(광주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에게 요리 비법을 전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데마가 있

는 건강요리’와 ‘액티브시니어’ 2개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데마가 있는 건강요리’는 전통 겨울 보양음식을 주제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운영된다. 5주간의 단기과정을 통해 ‘임자수탕·두부선’, ‘보양보기탕·더덕생채’, ‘우족탕·큰각두기’, ‘돌집·습조탕’ 등 총8개 요리를 실습할 계획이다. 수강료는 5만원(재료비 별도)이다.

또한, 올해 11회째를 맞이한 ‘액티브시니어’는 은

퇴 후 새로운 취미 활동을 찾는 중·장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은 ‘기양주·습조탕’, ‘연포탕·더덕구이’, ‘녹돈편육·돼지고기김치찌개’, ‘영양밥·선지국’, ‘개감정·곰무나물’, ‘너비아니구이·버섯감정’, ‘나주곰탕·고사리나물’이다. 2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8주 동안 운영되며 수강료는 7만원이다.

강좌 접수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이며 강좌당 2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전통문화관 홈페이지(www.gtcc.or.kr), 전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문의 062-232-150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시 100수 따라 맛보는 선인들의 정취

최재희 남도시민아카데미 대표 ‘한시 속에 스민 달’ 발간

“九思”라는 옛 책에 “남을 증오하는 모습은 술잔에 떨어뜨리고, 세상을 슬퍼하는 마음은 시구 속에 감추어둔다.”(憎人面孔, 落世心腸, 藏之詩句)라는 구절이 있다.

작금은 말이 범람하는 시대라고들 한다. 또한 시가 읽히지 않는 시대라고도 한다. 이런 시대에 한시(漢詩)가 읽힐 지는 더더욱 미지수다. 그럼에도 과거 선인들이 찾아낸 한 단어 한 단어들을 독자들과 함께 음미해보고자 한시를 매개로 한 인문학 책을 엮은 이가 있다.

인문학공동체 ‘남도시민아카데미’ 최재희 대표가 펴낸 ‘한시 속에 스민 달’(드림북·사진)은 한시 50개를 토대로 한시의 매력과 옛 선인들의 지혜 등을 담고 있다.

책에는 ‘술’, ‘달’, ‘꽃’ 등을 소재로 한 시가



등장한다. 옛 시인들의 선호했던 소재들로, 저자는 시와 느낌이 비슷한 옛 그림도 곳곳에 소개해 읽을거리와 볼거리를 동시에 선사한다. 또한 표제시에 따라 해석하고 느낌을 말하고, 연관되는 좋은 시나 문장들까지 연결해 다양한 관점에서 한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연유로 실제 소개되는 한시는 약 100여수에 이른다.

특히 秋夜(추야), 初月(초월), 竹(죽), 月夜(월야), 望月(망월) 등의 시는 특유의 정취와 정감이 깃들여 있다. 이를 풀어내는 저자의 감성 또한 예사롭지 않아 각각의 작품은 쉬우면서도 간결하게 다가온다.

저자는 “모두가 한시를 해석할 수준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지만 한자(漢字)를 익힌다는 것, 특히 한자의 고갱이인 한시를 접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세상이 열리는 길”이라며 “언어는 곧 삶이고, 언어가 고정된 사람들의 일상은 제 언어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차두옥 동신대 교수, 생활연극협회 부이사장 선임

동신대학교 차두옥(방송연예학과장·중앙도서관장·사진) 교수가 최근 (사)한국생활연극협회 초대 부이사장 및 광주시지회장을 맡았다.



한국생활연극협회(이사장 정중현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는 프로 연극인과 아마추어가 함께 연극을 공유하도록 뒷받침해줌으로써 일반인의 삶 속에 연극이 가까이 스며들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7월 창립됐으며 현재 전국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2016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시행하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어 협

회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 교수는 “프로 연극인이 멘토가 되어 일반인들에게 연극을 가르치고,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창작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연극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의 연극 인구를 증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협회의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연극, 영화, TV, 라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를 넘나들며 연출과 연기자로 활동해온 차 교수는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심본 활용해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비엔날레재단, 신호운 스튜디오 24일 방문

(재)광주비엔날레가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례회’ 일환인 GB작가 스튜디오 탐방 여섯번째로 신호운(사진)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한다.



24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와 지역 작가들은 광주시 서구 농성동 신호운 작가 스튜디오를 찾아 작업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통한다. 관심있는 작가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다.

신 작가는 평면의 중이를 조립하고 구조화시

켜 입체적 형태를 만들어 내며 그만의 조형 세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신 작가는 광주와 서울, 북경, 방콕 등지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13일본 고베비엔날레, 2011소피아페아퍼비엔날레 등 90여 회 전시에 참여했다. 2015년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2011년 하정웅 청년작가에 선정됐다. 현재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청년작가 초대전 ‘피안의 섬’을 열고 있다. 문의 062-608-42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	--	--	--

대표전화 1588-2219